

은행

산업이슈 브리프 |

Check Point

-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
- 업권 내 경쟁유도와 시스템 안정 강조
- 수익성 확보와 주주환원 관점에서 부정적 영향 불가피. 업종주가는 기반영

제도개선 방안 관련

Analyst 전배승 _ 02 3779 8978 _ bsjun@ebestsec.co.kr

은행권 제도개선 방안 발표

- ▶ 금융당국은 전일 은행권에 대한 경영 및 영업관행,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. 주요 내용으로는 (1)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, (2) 금리 체계 개선, (3)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으로 구성.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(1)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신규은행 추가인가(시중/지방은행), 은행권-비은행권 간 경쟁촉진, 대출/예금금리 경쟁방안 등이 포함됨. 이미 지난 3월 한차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미국 중소형은행 파산사태로 인해 당시 논의되었던 스몰라이센스·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안은 제외됨
- ▶ (2)와 (3)은 각각 대출차주의 금리리스크 경감을 위한 조치(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)와 은행권 손실흡수력 확대를 위한 자본확충이 주 내용임. (3)의 일환으로 당국은 이미 경기대응완충자본(1%)을 부과한데 이어 하반기 중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할 계획
- ▶ 이 밖에도 성과보수체계 개선,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전반적으로 은행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

수익성 확보와 주주환원 관점에서 부담. 업종주가에는 기반영

- ▶ 은행권 내 경쟁을 유도하는 가운데 고금리 환경에서 시스템 안정성을 강조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은행들의 수익성 확보 및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. 이미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산금리가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높아지는 신용위험을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
- ▶ 다만 제도개선 방안관련 주요 내용들은 이미 발표되었거나 지속 논의가 이뤄진 부분이어서 업종 주가에 추가적인 부담은 아닐 것으로 예상.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예상되나 규모의 격차 감안 시 경쟁구도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전망

그림1 은행권 경영·영업관행·제도개선 방안

구분	내용
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	1.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- 지방/저축은행 → 시중/지방은행 전환 적극 허용, 신규인가 추진 2.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 경쟁 촉진 -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, 지방은행 규제개선, 비은행권 자금결제업무 검토 3. 금융권간, 금융-IT간 협업 강화 -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활성화 등 4. 대출, 예금 금리경쟁 촉진 - 대환대출 인프라,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,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조치
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	1.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2.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 확대 3. 대출금리산정체계 일관성 및 합리성 확보
손실흡수능력제고	1.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2.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3.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
비이자이익 확대	1.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2. 은행을 통한 금융-비금융 융합 추진 3. 벤처투자, 해외진출 확대
성과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	1. 임원 성과보수제도 개선 2.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방안 마련
사회공헌활동 활성화	1. 사회공헌 공시제도 정비 및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설정 2.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및 경영문화 정착 여건 조성 3. 은행점포 폐쇄절차 내실화 및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

자료: 금융위원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합계	+15% 이상 기대 -15% ~ +15% 기대 -15% 이하 기대	94.0% 6.0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22. 7. 1 ~ 2023. 6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